

마약 성분이 확인된 식품 유형 (총 34개 제품)



**젤리**  
13개



**사탕**  
5개



**음료**  
4개



**초콜릿**  
3개

과자 3개

차 3개

캡슐커피 1개

식이보충제 2개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를 하다보면 달달한 음식을 먹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도 아주 가끔 공부를 하다보면 단 간식을 먹고 싶어지는데요. 단 간식을 적당히 섭취해주면 빠르게 포도당을 뇌에 공급하여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 받은 해외에서 공급된 단 간식이 부정식품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7~8월에 방학이 시작되면 해외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때 무심코 해외여행 중 섭취한 섭취한 단 간식이나 해외여행 중 선물로 산 단 간식이 우리 몸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유통된 마약젤리·마약사탕 등을 이용한 신종 마약 범죄가 급증했으며 해외여행 중 모르고 먹은 젤리에서 마약이 검출되어 마약범으로 몰린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이나 해외식품 직구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대마 등의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젤리, 사탕, 음료처럼 남녀노소 좋아할만한 형태의 해외 부정식품을 무심코 섭취하게 되는 것인데요. 위의 그림을 보시면 식약처에서 파악한 마약성분이 확인된 식품의 유형들입니다. 차나 캡슐커피의 형태로 들어오거나 체중 조절에 관심이 많은 심리를 악용하여 식이보충제의 형태로 유통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가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34개를 검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마약류 등 금지 원료·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습니다. 검사항목은 대마 등 마약류 성분 55종 및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1종)으로 검사결과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확인된 것입니다.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 반입,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른'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